

강진군 '2018 A로의 초대'...관광 에이스 도약 꿈꾼다

올해 관광객 목표를 500만명으로 세운 강진군이 '2018 A로의 초대'라는 전략을 짜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강진군은 'A로의 초대'를 디딤돌 삼아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각오다.



강진군 야심작 '2018 A로의 초대'는

A자 모양 강진만서 모티브 관광의 시작 등 복합적 의미 지자체 첫 문자 마케팅 주목

'2018 A로의 초대'는 '2017 강진 방문의 해'에 이은 강진군의 또 하나의 야심찬 기획이다. 'A'자 모양의 강진만 지형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A=강진만=강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ACE 최고의 관광지인 ALL 국내 관광의 모든 것, 여행·관광의 시작은 알파벳 첫 글자 A로부터 등 복합적인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A가 상징하는 강진만의 역사적 의미로는 반만년의 자리를 지켜온 바닷길과 청자와 웅기 운송로, 신마항, 강진의 해산물 공급지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다. 지자체 최초의 문자 마케팅이란 새로운 영역을 제시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강진군은 '2018 A로의 초대'를 전국에 알리고 지난해 관광객 256만명을 넘어 올해는 두배에 가까운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8 A로의 초대는 25개의 핵심과제로 구성했으며 감성과 여성, 야간이라는 3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초기 기획부터 구제안 마련까지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 25개의 핵심과제 중 1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해 강진 방문의 해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강진군은 지역관광 성공요소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올해 'A로의 초대'를 반드시 성공해 농특산물 판매 창출을 통한 지역민 소득 확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오감통통 시티투어 맛·야간·푸소 등 테마별 확대 명사 재현·나이트 드림·웨딩촬영 등 재미 한가득 여행박람회·팸투어 등 대도시 홍보로 관광객 유치

●관광 효자 '오감통통 시티투어'

오감통통 맛 시티투어는 '강진의 맛'을 기본으로 관광객 모집과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된 강진군 관광정책의 핵심이다.

오감통통 시티투어버스 운영은 지난해 투자대비 4.8배의 관광소득을 기록했다. 투자액 2600만원 대비 관광소득은 약 1억2400만원이었다.

이렇듯 관광객 유치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한 오감통통 시티투어는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된다.

이달 24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매주 토요일 대구와 부산, 광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청자 코스와 다산코스, 하멜코스 총 3개 코스로 매주 코스를 바꿔서 운영한다.

야간 시티투어도 시작한다.

강진군과 인접한 광주시와 순천·광양 지역민을 대상으로 강진군의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해 야간 명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강진 대표 감성프로그램 '푸소(FU-SO)체험'을 연계한 1박 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도 준비했다. 푸소는 '필링은 없고 스트레스는 풀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숙박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관광객이 오랫동안 머물게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야간 시티투어와 1박 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는 4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감성 프로그램 다채-강진은 재밌다

강진군은 오감통통외에도 흥미를 유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했다.

먼저 선조들의 삶을 상황극 형태로 재현하는 '명사 재현' 관광사업을 매주 주말 사의재와 영랑생가, 세계모란공원을 중심으로 진행, 강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흥미와 재미를 안겨줄 계획이다.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강진 방문의 해 결산 및 2018 관광비전 선포식'.



강진원(사진 왼쪽) 강진군수가 최근 오감통통 맛 시티투어에 참여한 대구지역 참가자 대표자에게 방문기념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한 차례 진행되는 '나이트 드림' 역시 기대작이다.

이 상품은 한국민화뮤지엄과 가우도, 오감통, 세계모란공원, 강진만 생태공원을 연계해 세계모란공원 야경을 관람하고 차를 시용하는 야간여행 상품이다.

강진만 생태공원 한지등 들고 걷기와 소망풍선 날리기 등 다채롭고 감성적인 체험프로그램도 곁들여 진행할 생각이다.

웨딩촬영 명소화사업도 4월부터추진된다. 11월까지 예비 신혼부부와 웨딩촬영을 원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웨딩촬영을 진행 사진 명소로서 강진을 전국에 알리려는 구상이다.

●전라도 관광 1번지 선도

군은 관광정책 마련과 함께 강진 관광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관광정책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여행사와 관광관련 기관, 여행작가

등 영향력 있는 인사 100여명이 참여해 강진군의 저력을 확인했다. 2월에는 SRT 수서역에서 마케팅 데이를 진행해 설 연휴 막바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강진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 농·특산품을 홍보했다. 지난 7월까지 수서역 지자체 홍보관에 강진 고려청자와 농특산품을 전시했다.

또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8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여했다. 이어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 CECO에서 열리는 '경남관광박람회', 5월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간 대구 동성로에서 열리는 '대구 동성로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전문가 집단을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지난 1월 30일과 2월 20일 두 차례 여행업계 팸투어를 진행했고 오는 30일 관광전문가 팸투어를 열 계획이다. 4월에는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 1차 팸투어와 여행작가 팸투어를 계획했다. 5월에는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 2차 팸투어와 여행작가 2차 팸투어가 열리고 6월에는 SRT 및 코레일 철도여행사 팸투어가 뒤를 잇는다.

이와함께 단체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관광인센티브 정책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자체분석 결과 강진군은 지난해 투자대비 약 2.8배의 높은 지역주민 직접 소득을 가져왔다. 여행사의 강진사랑상품권 구입액이 3억3000만원을 넘는 것만으로도 이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증명한다.

임석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다른 지자체들이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치에 저조한 실적을 내는 것과는 달리 우리 군은 투자대비 수익구조를 극대화해 전라남도 관광 1번지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